

## 주일의말씀

##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손종현 요한 신부  
신평본당 주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성심이 모든 이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소금인형의 사랑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옛날 소금인형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다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더랍니다. 그 사랑은 소금이 바다에 몸을 던지게 했고 소금인형은 바다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다 속으로 형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소금인형아! 넌 뭐니?’ 소금인형이 대답했습니다. ‘음.. 난 바다야.’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바다가 짠 이유’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체 성혈 대축일’인 오늘 소금인형의 사랑이야기가 사뭇 의미있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소금인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흡수되었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던져지셨고 그 던져짐은 오늘날까지 성찬의 전례를 통해 성체와 성혈이 되어 우리에게 계속되어 집니다. 조심스럽게 주님께 여쭙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음.. 난 사랑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십니다. 사랑이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상대방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또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치열한 것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성체와 성혈을 내놓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생명의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6,55 참조)  
제1독서 : 신명8,2-3,14ㄴ-16ㄱ 제2독서 : 1코린10,16-17 복음 : 요한6,51-58.

##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

문화홍보실



제 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

**교**황(敎皇)이라는 말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현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제 265대 교황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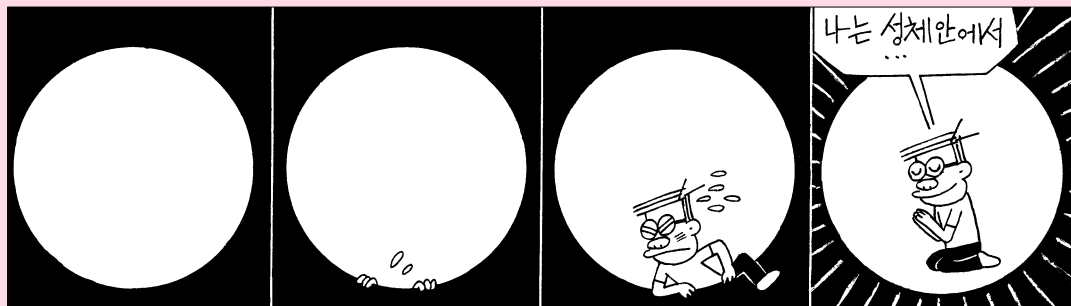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사도 가운데서 시몬을 우두머리로 뽑으시고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6,18-19)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단의 단장으로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셨고(사도 15,1-21) 사도 바오로와 함께 로마에 교회를 세웠으며 로마의 초대 주교가 되어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 로마의 주교가 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명령을 물려받아 주교단의 단장이 되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6-17)하신 말씀에 따라 온 세상 교회를 다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맺고 푸는 권한으로 예수님을 지상에서 대리합니다.

교황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실 때는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는 모든 이의 종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위엄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형제들을 이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명령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황님을 위해 모든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자고 이 날을 따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 주님께 청할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요긴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교황님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거룩한 사랑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청합시다. 

## 주님은 내 안에 살고

박성규 엘리지오





## 오늘의 미사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교향 주일**

### 입당 성가

399 주님 안에 하나

### 화답 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복음 환호 송

◎ 알렐루야.

### 봉헌 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영성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  
물리라.

### 파견 성가

461 나는 주님 포도밭

## 영성의 향기

### :: 판단하지 맙시다

사실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만큼 소화가 잘 안 되고 지키기가 어려운 것도 드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속에서 은연중에 배워 온 습관과 반대 되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우리 믿음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만이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일을 잘 모르고, 남의 속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목숨까지 넘겨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모자랍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로마 14,1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몸을 맡긴 사람의 의견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자기 나름으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 짧은 글 - 깊은 생각

### 당신은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어떤 부부가 새로 이사를 해서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또래의 부부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부부 역시 최근에 이사를 해서 생필품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먼저의 부부가, “저희가 이사 온 동네는 아주 근사해요. 이웃들도 참 친절해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부는, “참 좋으시겠네요. 저희가 이사 온 동네 사람들은 되게 무뚝뚝하던데. 아는 척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두 쌍의 부부는 같은 동네에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성소 / 피정

오순절평화의마를 후원회미사

일시: 6.27(월) 11:00

장소: 고산성당

내용: 교해성사, 미사, 안수

문의: (051)782-0765

성베네틱도회 왜관수도원 성소모임

일시: 7.2(토) 16:00 ~ 3(일) 14:00

장소: 성베네틱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교이상-만32세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8353-2323

성소를 찾고있는 젊은자매들의 기도모임

일시: 7.3(일) 13:00, 이곡성당

문의: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이 리디아 수녀, (016)570-0939

아씨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젊은이기도모임

일시: 7.3(일) 14:00~

장소: 월배성당 내 수도원

문의: 황 안젤라 수녀, (010)5313-0241

예수회 성소식별피정

일시: 7.16(토)~19(화), 3박4일

장소: 성도미니코수녀회 피정의집(형성)

대상: 대학생, 35세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7197-7400, vocsj@hanmail.net

가르멜 기도학교

일시: 7.30(토) ~ 31(일)

매월 마지막 주, 1박2일 피정식

장소: 마산가르멜 피정의집

대상: 고등, 대학, 일반 (선착순: 20명)

문의: (010)9475-5254, 회비: 4만원

교육 / 모집

7월 영어 성경반 모집

개강: 7.5(화) 10:00 ~ 12:00 (월: 2만)

과정: 화-에페, 여호수 / 목-마르, 창세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대구가톨릭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강

지원자격: 대학교 3·4학년 및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서류접수: 6.1(수)~6.27(월)

개설기간: 7.4(월)~8.12(금) 18:20~22:00

문의: 850-3767, 3769, 3160 (<http://kdi.cu.ac.kr>)

제17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대상: 초4-중3 (선착순: 40명)

기간: 7.17(일)~8.27(토) 6주, (4백5만원)

문의: 656-6655(ARS4)

제10회 성인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중

문의: 593-1273

양업고등학교 대안교육 연수회

일시: 7.23(토) ~ 24(일) 1박 2일

장소: 다목적실(토마스관)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모

문의: (043)260-5076 (<http://www.yangeob.hs.kr>)

※2012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안내도 함께 합니다.

젊은이 하계 성령 세미나

일시: 8.5(금)~7(일), 월막요한피정의집

문의: (054)954-0951 / (010)2864-3156

富力 창조에서富力 경영까지

『富力창조경영포럼』 수강생 모집

기간: 8.29 ~ 12.12(매주 월) 19:00 ~ 21: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2011년 자산증대 전략 노하우 제시

문의: 526-3433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255-4847

생활성가밴드 아도나이 멤버모집

모집부문: 건반, 보컬(여자, 남자)

문의: 조용석 아나스타시오, (010)4509-7016

<http://club.cyworld.com/adonaiband>

몽골선교지 방문단 모집

기간: 8.8(월) ~ 12(금)

문의: 몽골선교후원회, (042)256-4119

직원 채용

월막 피정의 집 여자 사무원 구함

자격: 고졸이상, PC가능한 자

장소: 고령 성령 봉사회관

기타: 숙식가능

문의: (054)954-0951~2

안내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문용호(마르코), 박삼숙, 김동신, 성민경(요한나)

| 미 사                  | 일 시             | 장 소     | 미 사             | 일 시            | 장 소        |
|----------------------|-----------------|---------|-----------------|----------------|------------|
|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6월 27일(월) 오전11시 | 죽도성당    | 바노의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 6월 30일(목) 오후2시 | 삼덕성당       |
| 구미지역 밀알후원회미사         | 6월 27일(월) 오전11시 | 도량성당    | 미바회 미사          | 7월 1일(금) 오후2시  | 성모당        |
| 군중후원회 미사             | 6월 27일(월) 오전11시 | 계산주교좌성당 | 성모의 기사회 미사      | 7월 2일(토) 오전10시 | 월배성당 내 수도원 |
|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6월 28일(화) 오후2시  | 성모당     |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 7월 2일(토) 오후2시  | 성모당        |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 선일외과의원 ♣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비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 → 300m

TEL : 745-6633~4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 (베드로)

전문의 원장 이영국 (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 (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 (24시간 채석)

범여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강북 행복을 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 323-2875 / 323-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허리아프고 ~ 다리아플때

척추 관절을 치료하는 ~

참조은병원

척추 관절을 위한 13명의 의료진 !

참조은병원에 또 모였습니다.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630-8000 송현역2번 출구

강남 피아노사

중고피아노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영가 판매

☎ 010-3541-8194

053) 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노블코리아

결혼정보회사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의 성향을 전

재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수수료

를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상인동 홈플러스 맞은편 한상철 학원 5층

대표 박영주 켈마

문의: 053) 639-8998

Jeep® 수성점

‘미국 정통 아메리칸 빈티지

캐주얼 Jeep’

남부 정류장 방면 수성아파트 터워 상가 1층

◆ 지하철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 바로 앞 ◆

T. 744-9227

대표 이용순 (수산나)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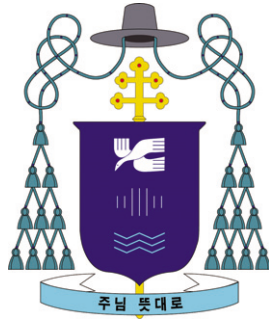
상인행복을심는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633-7504 / 634-7504

원장 강원일(안드레아) · 구선주



## ‘나주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공지문

1. 소위 ‘바티칸에서 두 번째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 (2010. 4)는 문제와 관련된 유언비어들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대교구는 소위 ‘나주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미 교구가 내린 결정 사항이나 그와 연관해 발표한 일련의 공지문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일부는 바티칸 당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가톨릭 신자들을 혼란케 하며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28일 신앙교리성의 공적인 서신(문서번호: 112/1993-27066)에서 “이 나주 문제에 대해 윤공희 대주교님이 발표하셨고 후임자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발표하신 결정을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교황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대교구 현 교구장인 본인은 2010년 7월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방문하는 기회에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3. 본인은, 소위 ‘나주 현상’이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유일한 주무 부처인 교황청의 신앙교리성과 직접 접촉하고 있음을 한국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밝혀드립니다.

2011년 5월 1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교구장 김 희 중 대주교

김희중

## ‘나주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지문을 발표하면서

**이미** 1998년 윤공희 대주교님의 공지문과 2008년 최창무 대주교님의 교령을 통해서 윤율리아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미사, 전례, 성사 집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자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10년 9월 9일 소위 ‘나주 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교구장의 사목 공지문 발표 승인 요청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신앙교리성은 2011년 3월 30일 서신(문서번호 : 112/1993-35015)을 통해 나주 현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사목공지문 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서신에서 신앙교리성은 “율리아의 추종자들이 기적의 사례들이라고 신앙교리성에 보내온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주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 교황청이 그 입장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 교구장이 준비한 공지문을 발표하는 것은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가 될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청의 입장이 교구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앙교리성은 본 교구장이 교구 사제들을 독려하여, 사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에 맞는 올바른 성체 신심과 마리아 신심을 신자들에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신앙교리성과 협의 하에 소위 ‘나주 현상’과 관련된 공지문을 발표하니 모든 신자들이 나주 현상과 관련한 전임 두 분 대주교님의 공지문과 교령의 사목적 지침에 충실히 따르기를 바랍니다.